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17년 8월 23일 수요일 (음 7월 2일) 제1875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 지역수요맞춤사업 4개 선정 성과

정읍 구절초공원 기반시설 조성 등… 2020년까지 139억 투자
관광시설 확충 · 지역 생산품 판매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부 공모사업인 지역수요맞춤사업 전국 19개사업 중 전북은 4개사업이 선정됐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수요맞춤 공모사업에 '정읍시 구절초공원 기반시설 조성' 등 4개사업이 선정되어 2020년까지 국비 76억원 등 총 139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 선정은 낙후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간 아이디어 경쟁을 유도하는 공모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에서는 2015년 2건, 2016년 2건이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4건 선정은 역대 최대규모의 국비확보가 예상된다.

또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관광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생산품의 홍보와 판매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시 구절초 공원은 사계절 관광을 목표로 캠핑장과 짚라인 등을 설치한다.

진안시장 주차장 조성은 공영주차장과 문화거리를 조성한다.

임실천 경관개선사업은 임실천에 공원조성과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최초로 시군간 연계사업에 선정된 순창군과 담양군간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은 행정구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화합을 도모하며 지역의 상생발전모델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수요에 부응하여 어렵게 공모에 선정된 만큼,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상향식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자생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며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하고 2018년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황금빛으로 물든 벼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부안군 계화도의 벼 농가에서 노랗게 익어 수확을 앞둔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문 대통령, 정상외교 재개… 러시아 · 미국 등 순방

내달 6일부터 이틀간 개최 동방경제포럼 참석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재개한다.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예정된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시작으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정상회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 · 중 · 일 정상회의 등에 잇따라 참석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같은 하반기 정상외교 일정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9월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예정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포럼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 · 러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일주일 후인 18~22일에는 뉴욕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19일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10~11일에는 베트남 다낭에서 예정된 제25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후 필리핀 마닐라로 곧바로 이동해 13~14일 아세안+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나서는 것은 지난 7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2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한 · 미 정상회담 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6월28일~7월2일)한 것을 시작으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7월5~8일)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포함해 총 13개국 정상과 회담을 진행했다. /뉴시스

원광대, 국내 사립대 최초 입학금 단계적 감축 시행

내년에 20%, 그 다음해부터 매년 10%씩 10년간에 걸쳐 내년 신입생 9여만원 인하 혜택

원광대학교가 국내 사립대학 중 처음으로 입학금을 최소비용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초과부분은 사실상 폐지한다고 밝혔다. 2018년에는 20%를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0%씩 총 10년간에 걸쳐 입학최소비용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신입생은 9만2,240원의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 원광대학교의 1인당 입학금은 57만6,500원이며 2016년 기준 총 입학금은 23억3,194만2,500원으로 총 등록금 수입의 2.145%를 차지한다.

2017년 현재 입학금 57만6,500원을 2018년도에는 20%를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0%씩 인하하여 입학최소비용인 11만5,300원 수준까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입학금의 일시적 폐지로 인한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폐지 방안을 마련한 것.

입학최소비용인 11만5,300원은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 자료비, 각종 검사비 등과 같이 신입생의 입학과정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다. 올해 입학금 57만6,500원에서 이 최소비용을 제외한 46만1,200원을 첫 해(2018년)에 20%에 해당하는 9만2,240원을 인하하고, 나머지 36만8,960원을 9년에 걸쳐 4만1,000원씩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계획이다.

그동안 근거 없는 입학금 징수 논란과 관련하여 원광대학교는 사립대 최초로 입학절차에 필요한 입학최소비용을 산출하여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입학금 인하로 줄어드는 예산은 대학 운영예산을 개선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장학금 및 정부재정지원사업과도 연계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정악화로 인한 대학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난관 극복을 위해 학교기업을 통한 수익확대 및 발전기금 확충 등 자체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원광대학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금을 동결하고, 2012년 6.3%, 2013년 0.6%, 2014년 0.53% 인하에 이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해서 동결을 이어왔으며, 9년째 등록금 인하 및 동결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김도종 총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비 경감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대입을 앞둔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고통 분담을 통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취지를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77건 적발

올 상반기 도내 6개지역 395개소 대상 점검 결과

전북도가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주와 군산 · 익산 등 도내 6개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395개소에 대해 점검을 벌여 77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도내 산업단지의 대기 · 폐수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사업장의 주요 위반 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이에 전북도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오염사고 사전에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